

종교교육학연구 제41권. pp.45-68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2. 28.

학교의 종교교육에서의 동성애*

심 상 보

한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학교의 종교교육에서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고 그것을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가져오기 위한 교육적 전략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은 첫째, 학교의 종교교육에서의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학교의 종교교육에서 나타난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공식적 교육과정인 국가 교육 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과 교과서, 수업 계획표 등 자료 분석과 종교교사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종교교육의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성의 교수에 대한 교육학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핵심 주제어: 종교교육, 영 교육과정, 동성애

I. 서 론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명희는 영성 부족에서 찾고 있다. 그는 근대교육이 영성교육을 배제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소외감과 정신적 혼란,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 등 정신적·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고, 21세기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교육 안에서 인간의 총체성, 초월성, 다양성 등을 완성할 수 있는 영성 회복을 주장한다.¹⁾ 교육에서 영성을 강조하는 파커 팔머(Paker Palmer)도 근대교육

* 이 논문은 2012년 한남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음.

1) 한명희, 『영성과 교육: 21세기 대안교육을 위하여』, 한명희 외 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10). 25-63쪽.

은 영성교육을 간과함으로써 지성의 눈이라는 한쪽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차가운 이성만 강조하고 따뜻한 마음과 영혼의 세계는 볼 수 없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기계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²⁾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강영택은 학교교육에서 그동안 간과해 왔던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성장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이라고 주장한다.³⁾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한 종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부분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법률적 또는 종교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되었기 때문에, 정작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등한시했다. 따라서 교육학적 지식과 소양을 기르거나 타종교에 대한 이해나 종교일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특히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관점에서 종교교육을 논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영성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영성회복을 주장하면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종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적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학생들이 몰라서 편견, 선입견, 차별, 소외 등을 낳는 영 교육과정을 살피고,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교육에 대한 영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접근은 외국에서는 인종, 성, 정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 반면에 한국의 종교교육에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배제시키고 금기시하며 가르치지 않아서 그 내용들을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하게 만드는 교육과정으로,⁵⁾ 학생이 어떤 문제나 사태에 대

2) Paker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서울: IVP., 2012), 35-37쪽.

3) 강영택,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의 방안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제27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1), 193-216쪽.

4) M. Harris & G. Moran, Homosexuality: A Word not written. In W. Wink(Ed.), *Homosexuality and Christian Faith: Questions of Conscience for the Churches*(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pp.71-76. J. C. Rowell, "Toward Understanding Homosexuality: A Agenda for Adult Christian Education's Contribution to Human Wholeness", *Religious Education*, 91, 1996, pp.122-134. BoyungLee, "Teaching Justice and Living Peace: Body, Sexuality, and Religious Education in Asian-American Communities", *Religious education*, v.101 no.3, 2006, pp.402-409. Russell G. Moy, "American Racism: The Curriculum in Religion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v.95 no.2, 2000, pp.119-133. Maria Harris, "Teaching the Null Curriculum: The Holocaust",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Christian Education Movement, v.11 no.3, 1989, pp.136-138.

5) Elliot W.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New

해 알지 못하거나 편견에 빠진다면 그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다.⁶⁾

영 교육과정을 처음 소개한 엘리엇 아이즈너(Elliot W. Eisner)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교과 영역과 사고 영역이 있는 반면에 의식적으로나 관례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교과 영역과 사고 영역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영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 인류학, 예술, 커뮤니케이션, 경제학 등의 과목과⁷⁾ 성이나 약물 중독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념체계를 가진 이론이나 이념교육 등을 들 수 있다⁸⁾ 여기서 최근에 좀 달라졌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성에 관한 대화는 금기시되어져왔다는 점에서 성은 대표적인 영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더 그렇다.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학교의 종교교육에서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성교육에서 다양한 성에 관한 논의가 희박한 상태에서 최근에 동성애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학교교육에서도 동성애 내용을 회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종교교육에서의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교육 즉, 동성애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서 성에 관한 문제를 다른 영역에서도 다룰 수 있는데 왜 종교교육에서 논의하려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의 연구 필요성과 함께 살펴보았다.

현재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은 교육부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위한 특정교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과목을 통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도 보건담당교사가 있는 대규모학교인 경우에 한하고 중·소규모의 학교인 경우는 가정이나 생물과목 등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과목을 통해서는 성교육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지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종교란 인간의 궁극적인 삶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과 인간의 삶은 결국 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의 문제가 처음으로 종교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교육은 종교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종교는 인간의 삶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분야로 종교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p.97-107.

6) 진영은,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03), 293쪽.

7) Elliot W. Eisner, op.cit., p.106.

8) ibid., pp.293-294.

9)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서울: 창비, 2012), 53-88쪽. 박에스더, 『나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서울: 쌤앤파커스, 2012), 326-334쪽.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도 가장 먼저 인간과 종교의 관계를 다루도록 되어 있고, 인간의 삶은 결국 성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바로 성교육은 종교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 종교교육은 정신교육과 도덕교육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또한 성교육이 종교교육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¹⁰⁾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종교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고 종교야말로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학생들로 하여금 정체성 특히 성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교육에서의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교육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의 종교교육에서의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학교의 종교교육에서 나타난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가톨릭 학교 중 대전·충남 지역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3개교 중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업계획서 분석과 이메일, 전화인터뷰,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종교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서 무관심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크게는 영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의 영 교육과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학교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종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교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계 학교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신앙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종교교육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거나 금기시 되어서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학습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영 교육과정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가톨릭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갖게 되는 생각은 성별, 개인의 권위주의적 성향 또는 정치적 성향 그리고 종교 성향과 같은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¹¹⁾에 기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성애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닌다. 또한 종교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10) 신광철, 「종교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 - 교육과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제37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쪽. 박광호 역, 『섹스 앤 더 처치: 젠더, 동성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변혁』(서울: 한울, 2011). 슝 프로젝트,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서울: 한울, 2010).

11) 조대훈,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 - 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제43권 1호(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1), 205-237쪽.

종교 성향은 Allport와 Ross에 의해 구체화되어 외현적(external) 종교 성향과 내현적(intrinsic) 종교 성향으로 구분되는데 내현적 종교 성향은 종교 그 자체에 귀의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반영하여, 종교의 교리에 충실히 따르고, 종교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찾으려는 태도를 말하며, 외현적 종교 성향은 종교에 대한 도구적인 태도를 반영하여, 종교를 가지는 목적을 개인의 보호나 위안을 얻거나, 사회적 인맥과 지위를 넓히는 데서 찾는 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내현적 종교 성향이 강할 경우, 동성애에 대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주의적 성향과 종교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II. 종교교육에서의 동성애: 영 교육과정으로부터 공식적 교육과정까지

1. 종교교육에 나타난 영 교육과정: 동성애

1) 동성애에 대한 인식

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그 이전에는 성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적 교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종족보존과 번식이라는 관점에서만 취급되었다.¹²⁾ 성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자식 낳고 번성(창세기 1장 28절)”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라 강제되었던 당시, 특히 동성애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금지되었을 것¹³⁾이라는 주장들이 논의되었다. 말하자면 19세기까지 성을 주제로 하는 대화는 금기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금기의 영역이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성애 법률에 관한 부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¹⁴⁾, 구약에서는 레위기 18장 22절¹⁵⁾과 20장 13절¹⁶⁾ 두 곳과,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6-27절¹⁷⁾과 로마서 1장 31절¹⁸⁾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고대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명시하여 규제하였다. 그것은 고대 유대인들의 생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의 인간의 절대적 욕구는 자손 생산과

12) Herbert Haag and Katharina Elliger, *Stoert Nicht die Liebe*, 윤선아역, 『사랑을 방해하지들 말아다오 - 성서로 본 인간의 성생활』 (서울: 분도출판사, 1988), 32쪽.

13) 슝 프로젝트, 앞의 책, 265쪽.

14) 신득일, 『구약의 동성애법』, 『신앙과 학문』제14권 2호(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9), 134쪽.

15)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227쪽.

16) 위의 책, 231쪽.

17)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앞의 책, 338-339쪽.

18) 위의 책, 339쪽.

번성이었고 이러한 목적을 방해 또는 좌절시키는 행위나 습관은 어떠한 것도 용납되지 않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 나온 엄중한 칙령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¹⁹⁾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절박한 문제는 인구폭발이고 이러한 인구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회를 위해 필요하게 되면서 단순히 자손의 번성과 같은 논리로 동성애를 죄로 취급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위기의 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시민법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²⁰⁾, 이 법은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제의적 규범이므로 윤리적인 동성애 금지법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²¹⁾ 이처럼 구약의 동성애 법률은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약에 기록된 내용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 1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상을 적어 보낸 편지의 18절부터 32절 중에 26절과 27절의 내용이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의 내용과 비교되고 있다.²²⁾ 그러나 이 구절은 동성애라고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동성애자들을 심판한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은 대개 폭력과 강압에 의한 성관계, 나그네에 대한 핍박 등 성경의 다른 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본다.²³⁾

하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논란의 소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학자들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칭찬하지도 금하지도 않았다고²⁴⁾ 하고, 다만 동성애를 금했던 이유에 대해 자녀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고,²⁵⁾ 성 역할의 차이에 대한 것이지 현대 사회의 동성애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²⁶⁾

사실 동성애의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석기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문화권에서 나타나고 있다.²⁷⁾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성행하였고 고급문화의

19) 윤선아역, 앞의 책, 79-80쪽

20) 신득일, 앞의 책, 135쪽.

21)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101.

22) 윤선아역, 앞의 책, 82쪽

23) 김두식, 앞의 책, 73쪽.

24) Jacob Milgrom,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p.197.

25) Sarah J. Melcher, 『The Holiness Code and Human Sexuality』, Robert L. Brawley (ed.), *Biblical Ethics & Homosexuality: Listening to Scripture*(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p.99.

26) Gwen B. Saylor, “Beyond Biblical Impasse: Homosexuality Through the Lens of Theological Anthropology”, *Dialog* 44, no 1, 2005, pp.81-89.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²⁸⁾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²⁹⁾

그런데 종전의 학자들은 동성애를 일종의 성적 도착으로 취급하였다.³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 희랍의 특수한 상황과 고대 희랍인의 특수한 기질을 올바르게 존중해 주지 못하는 데서 빚어진 것과 정신분석학적으로 학자들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반영한 것일 뿐 잘못 취급된 것이다. 오히려 과거 희랍의 남성동성애는 ‘교육적 관계’였고, 교육은 동성애적 유대를 그 원초적 세력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것이다.³¹⁾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그리스, 희랍시대는 동성애나 이성애를 배타적인 두 개의 선택이나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행동유형으로 대립시키지 않았다.³²⁾

그런데 로마시대의 타락, 멸망과 함께 중세시대, 근세까지 동성애는 범죄로 취급되었다.³³⁾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학교교육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없었다. 이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동성애에 관한 더 진전된 논의

현대 사회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1993년 4월 25일 미군 내에서의 동성애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다. 더 나아가서는 1993년 3월 클린턴 정부 하에서의 동성애에 관한 공적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부터다.

최근 들어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성 전환(하리수), 커밍아웃(홍석천) 등 주로 연예인들을 통해서다.

무엇보다 인권차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성경에 어느 구절에서도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범죄자로 취급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과 함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적 경향은 타고난 것인지에 관한 논쟁에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다고 보고 동성애는 선천적,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점차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³⁴⁾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성애가 심리적 조건이 아니라 ‘생물학

27) John Money, *Gay, Straight, and in-between: The Sexology or Erotic Orient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14. 박노권, 동성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2011, 재인용.

28) 윤선아역, 앞의 책, 177쪽.

29) 이홍우, 『파이테라스테이아와 태교: 교육의 원초적 세력을 찾아서』, 『교육과정탐구』(서울: 박영사, 2010), 535-556쪽.

30) Marrou, H. I.,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G. Lamb(trans.), *Sheed and Ward*, 1956, original French, 1948. 이홍우, 위의 책, 541쪽 재인용.

31) 같은 책.

32)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e*, 문경자 신은영 공역, 『성의 역사: 쾌락의 활용』(서울: 나남출판사, 2011), 215쪽.

33)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서울: 학지사, 2001).

34) John F. Harvey, "Updating Issues Concerning Homosexuality", *The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적'조건이고,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란 개념을 부활시킨 일련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³⁵⁾ 그리고 최근에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³⁶⁾ 이것은 동성애를 인권 차원에서 본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동성애는 선호나 선택에 따른 자발적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큰 키나 왼손잡이 같은 상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욕구나 동기부여, 의지력, 기도, 벌 또는 다른 동기들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³⁷⁾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동성애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성애의 건강한 요소들을 정당화시켜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³⁸⁾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과거보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 하나 동성애에 관련한 연구들은 이성애를 동성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이성애 쪽으로 전환을 하게끔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³⁹⁾

그런데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인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성애가 좋나 나쁘다 또는 가치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본다 할 때는 동성애자의 정체성과 정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면 서 바꾸려고 한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한다 할 때는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최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동성커플이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⁴⁰⁾고 확인하면서 게이와 레즈비언들도 공평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엘지비티(LGBT :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넓은 평등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동성애를 죄이며 병이며 그리고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다.⁴¹⁾

여기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적 생활의 최고치는 사랑하는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와 레즈비언은 신의 영역에서 고립되고 무관하게 취급되고, 자기들과 함께 동행 하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⁴²⁾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의 절정이며, 하

28, 1993, pp17-18.

35) Matt Ridley, *Nature Via Nurture: Genes, Experience, and What Makes Us Human*, 김한영 역, 『본성과 양육: 인간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서울: 김영사, 2004), 226쪽.

36) 〈Headline 기사〉, 《EBS Morning Special》, 2012년 2월 9일.

37) 박노권, 『동성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8집(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3). 245-265쪽.

38) John F. Harvey, 앞의 책.

39) 박노권, 앞의 책.

40)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주는 6개다. *The Wall Street Journal*, 2012. 5.10.

41) J. Sears, "Sexuality: Taking off the Masks", *Changing Schools*, Spring 11, 1983, pp.12-13.

느낌에서 창조의 말씀을 던짐으로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성은 커다란 축복이다.⁴³⁾ 인간의 성은 하느님 형상대로의 창조이다(“이마고 데이”). 하느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창1:27). 또한 신약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참 인간임을 인정한다.⁴⁴⁾ 바울은 인간이 육체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육체 자체가 인간이라고 보고,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 하에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인성 구조를 논함에 있어서도 모든 분리성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의 통일체임을 내세우고 있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이성애에 길들여진 사회풍조 속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옳지 않은 것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못지않게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서 오는 일종의 인간 억압으로 볼 수 있다. 동성애와 이성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고 소수의 사람이 왼손잡이 또는 양손잡이이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애자이고 소수의 사람만이 동성애 또는 양성애자라는 점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⁶⁾ 동성애는 또 다른 방식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은폐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동성애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소수로,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정의와 죄의식의 두 가지 마음을 지니게 된다(Rowell, J. C., 1996).⁴⁷⁾

킨제이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을 사랑하는 주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성적 경향은 40%는 동성애 경험에 있다고 하였고, 5~10%는 진짜 동성애라는 것이다. 현실로 나타난 동성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커밍아웃한 홍석천은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는 인류의 3~15%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동성애자들의 인권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범죄자나 흉물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하리수처럼 성전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레이디가가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 두고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는데 과연 이러한 판결이 적절한가?에 대해 백지연의 끝장토론⁴⁸⁾에서 진중권과 윤정훈 목사의 논쟁이 이루어졌다. 윤정훈 목사는 레이디가가의 노래 가사가 동성애는 하느님이 창조했다라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독교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외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

42) J. C. Rowell, 앞의 책, pp.122-134.

43) Richard J. Foster, *Money, Sex & Power*, 김영호 역, 『돈 섹스 권력』(서울: 두란노, 2011), 105-128쪽.

44) 곽분이,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입장』, 『한국여성신학』 제27집(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6), 52-63쪽.

45) 조재규, 『기독교철학의 신체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8권 4호(서울: 한국 체육학회, 1999), 84-96쪽.

46) 곽분이, 앞의 책.

47) J. C. Rowell, op.cit., p.122.

48) 〈레이디가가콘서트, 청소년 유해판정 적절 했나〉,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2년 5월 2일.

쟁은 동성애라는 용어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 된 사항을 건드리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와 더불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으로 대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사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판단,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분명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의 작품으로 선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가톨릭에서 보는 인간관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인간에 대한 서술은 창세기 1장 26-28절과 콜로세이서 1장 15-18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⁴⁹⁾ 이것은 우리 몸이 느끼는 세계는 베일에 쌓인 신성이 아니며, 물질적 세계는 그것이 슬픔이든 고통이든 간에 신성한 선함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동성애 논쟁은 근본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합이 국가가 승인한 혼인에 따르는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다.⁵⁰⁾ 그래서 동성혼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일차 목적은 출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성 부부는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할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⁵¹⁾ 그러나 미국의 주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매사추세츠 대법원 판결에서 마셜 대법원장은 결혼의 일차 목적은 출산이 아니며, 혼인한 부부 사이의 독점적이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셜은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⁵²⁾

이것은 자신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면 타인의 성도 인정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공식적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이 장에서는 종교교육에서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가 공식적 교육과정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육과정 안에서의 종교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종교교육에 관한 지침은 처음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 나타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변화를 꾀하면서,⁵³⁾ 종교교육은 교양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 온전한 인격형성과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양육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49) 김경이, 「가톨릭학교교육 이념에 대한 연구: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Vol.18 No.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97-119쪽.

50)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서울: 김영사, 2010), 353쪽.

51) 위의 책, 353쪽.

52) 같은 책, 360쪽.

53)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종교 교과목 명칭이 최초의 ‘종교’에서 ‘생활과 종교’로 그리고 현재의 ‘종교학’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은 본 교과목이 지닌 교양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명료화된 과정으로, ‘종교학’교과는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교양 교과로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종교학’ 교과목의 목표는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르는 데에 있다.⁵⁴⁾ 이러한 목표를 통해 가톨릭이라는 말의 의미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편협된 시각이 아닌 균형된 시각으로 사회의 문제에 대해 보편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⁵⁵⁾ 이처럼 국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은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목적은 종교학적 성격을 강화하여 잘못된 편견과 신념에서 벗어나는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 종교교과목의 구성은 지식보다는 일상생활의 문제와 쟁점을 소재로 한다.⁵⁶⁾

여기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해서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종교교육의 목표를 보게 되면 종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균형된 지식을 통한 건전한 종교관 형성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배양,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르는데 있고⁵⁷⁾ 이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목표를 위해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영역이 8개로 나뉘어 있으며, ‘인간과 종교’ 영역에서 가톨릭 교과서 교육내용은 ‘성과 나’를 통해 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1992)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 교육과정의 목표는 “교양 선택 교과서의 고등학교 “종교”과목은 학생들에게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봉착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한다”⁵⁸⁾고 제시되어 있다. 지도상의 유의사항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교육의 중요성은 현재와 같은

54) 교육부, 『교육부 고시』(서울: 교육부, 1992).

55) 성현, 『한국 가톨릭 고등학교 종교 교과용 도서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7쪽.

56)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57)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58) 김귀성,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서울: 문음사, 2010), 26쪽.

다양한 문제들에 관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하면서 각자의 가치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1차적 의미는 “전인교육”에 있다⁵⁹⁾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귀성은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은 한국이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서 어느 특정 종교의 교리를 주입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종교와 타종교 그리고 인간과 역사를 객관적인 안목을 갖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종교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종교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종교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 성숙한 인간에의 지향,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역사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를 교육하는 것이지 특정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⁶⁰⁾

또한 정진홍은 종전의 종교교육이 대부분 역사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종교를 살아있는 문화현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실존문제나 가치문제로 여기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즉 죽음이나 고통, 정의나 인권, 자연이나 생명 등과 직접 조응함으로써 종교적 가치가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 지어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적-현실적 접근으로의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한다⁶¹⁾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류의 문화를 새롭게 읽고, 현실적인 삶의 복지를 위하여 그러한 문화현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터득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에 종교 과목을 교양 선택 과목으로 전제하는 한, 그 교육과정은 공사립을 막론한 각급 학교에서 공히 선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적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이러한 종교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종교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2종의 종교교과서 내용을 검토해 보자. 여기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한 종교교과서는 현재 편찬과정에 있음⁶²⁾으로 제외되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에서 출판된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에 제시된 종교교육은 ‘가톨릭’이란 말이 지니는 보편적인 성격에 부합하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관심사를 포함하여 인간의 가장 높고 신비로운 본성으로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⁶³⁾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59)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3』(서울: 집문당, 1991), 326쪽.

60) 김귀성, 앞의 책, 30-32쪽.

61) 정진홍,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7-42쪽.

62) 편찬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의 면담 결과

63)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고등학교 종교』(서울: 가톨릭문화원, 2008).

있는데, 성과 관련된 내용은 제1장 나를 찾아서라는 단원에서 “성과 나”라는 주제 하에 성전환, 성에 대한 정체성, 성에 대한 이해 등 이다. 여기서 인간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가지 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간혹 생리적으로 두 가지 성징을 지닌 채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가능한 한 하나의 성을 선택토록 그리하여 선택과 인격이 존중되도록 그리고 성 정체성이 혼미하여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되기 보다는 올바르게 하는 일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올바른 성적 정체성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 전환자나 동성애자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들을 돕는 방법을 모색해서 정신적 문제라면 의학자, 심리학자, 철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치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이 생리적으로 타고난 성과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는 본래의 성을 찾도록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교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성은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성애자가 아닌 경우는 정상이 아닌 경우로 어떤 식으로든 이성애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다. 동성애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의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⁶⁴⁾ 교과서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불충한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보다는 용서와 화해, 더 나아가 사랑으로 보답해 준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정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에 대한 관점은 종교적 관점에서 본 것과 일상적 삶에서 본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⁶⁵⁾ 종교적 관점에서는 올바른 성윤리 의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일상적 관점에서는 나와 다른 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성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직 종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동성애를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다루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공식적 교육과정에 제시된 종교교육의 목표가 일상적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64) 교과서 명칭이 『고등학교 종교』에서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로 바뀐 점은 종교를 어떤 특정 종교를 가르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교적 관점에서 해결하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서울: 마리아회유지재단 출판사, 2012).

65) 2012년 8월 16일 새 종교교과서 편찬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과의 면담에서 전문가가 본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할 때 다양한 성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종의 종교교과서에 나타난 성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종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목수녀님과 교목신부님 그리고 종교교재편찬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교수신부님을 면담하였다.⁶⁶⁾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실태는, 가톨릭계 38개 고등학교 중에 종교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9개교,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9개였고,⁶⁷⁾ 종교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종교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교과서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⁶⁸⁾

이 연구에서는 가톨릭 학교 중 대전 충남 지역 소재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S여고, N남고)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업계획서 분석과 이메일, 전화인터뷰,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S여자 고등학교의 경우, 「생활과 종교」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종교라는 과목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종교 윤리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으로 수업계획이 짜여져 있었다.⁶⁹⁾ 예를 들면, 성교육을 하기보다는 우리 몸에 대한 소중함을 환경문제와 관련지어 일회용 생리대의 문제점이나 에이즈 바로 알기 등을 통해 다루고 있었다. 면담에서도 종교교육에서 성교육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았으며, 동성애에 대한 언급 역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에이즈가 동성애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었는데 수업계획에 에이즈 바로 알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이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동성애와 관련지어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것은 동성애를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해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N남자 고등학교의 경우는 종교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과목이 따로 없고 철학과목 안에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 다루는 정도였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것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동성애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작업에

66) 전화 인터뷰, 메일 교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67) 성현, 앞의 책. 5-7쪽.

68) 같은 책.

69) S여자고등학교 1학년 「생활과 종교」연간수업계획표 참조

서 연구자가 예상했던 것처럼 분석 대상 자체인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가 공식적 교육과정의 주제로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⁷⁰⁾

전반적으로는 가톨릭에서 보는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으로 죄악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⁷¹⁾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982년부터 종교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교양 교육차원에서 종교교육이 실시되게 되었고⁷²⁾ 어떤 특정 종교의 종교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종교교육의 목적을 두면서 가톨릭에서도 선천적인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이해심을 가지고 대할 것을 권고하고, “간과할 수 없을 정도 상당한 수의 남녀가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 났다. 그들의 경우는 스스로 동성애자의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처지는 그들 대부분에게 시련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58항)고 제시한다. 이는 가톨릭교회가 선천적 동성애자들을 단순히 죄악시하고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상담이나 대화를 모색하는 등의 사목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실태는 종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만 정작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 다양한 성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말하자면 교실에 동성애자인 학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이성애자인 교사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학교교육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게이나 레즈비언이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오염시켜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인데 과연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적으로 동성애는 성인이 소년에게 교육을 통해 가르친 것으로 나타나는데,⁷³⁾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사회에서 이성애자 부모로부터 태어나 이성애자

70)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성애를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논의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 연구자의 분석 작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결과를 보인 한계점을 낳았다. 유일하게 다문화교육 차원에서 성적 소수자의 이미지가 공식적 교육과정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사회과교육에 적용시켜 논의한 조대훈(2006)의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 자체가 공식적 교육과정의 텍스트로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았다.

71) 박기석,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윤리신학적 고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 본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http://www.pauline.or.kr/catholic/pds/cath_view.php/id/1159/page/6. 황호택(2007), 한국 가톨릭 태두 정진석 추기경 “유일신 믿으면 근본주의 불가피...그러나 미신과 예절은 구분해야”, 통권 574호. 신동아.

72) 김종서, 『현대 한국 고등학교의 종교교과서 연구』, 『종교학연구』26권(서울: 서울대인문대학, 2007), 43쪽.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왜 이성애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는 최근의 연구결과⁷⁴⁾에서 보여주듯이 성적 지향이 교육으로 만들어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는 다른 형태의 사랑이 존재함을 최소한 이해하고 ‘다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가르쳐야 할 것이다.

김두식은 인권이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인권감수성의 중요한 출발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으로,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세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존재함을 최소한 이해해야 한다⁷⁵⁾고 주장한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성문제는 어떻게 보면 학교교육에서 성교육을 등한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무지와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으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무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다.

성현은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의 목적이 전인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교과서 내용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의 사회적 문제 중 성 문제에 관한 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⁷⁶⁾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Ⅲ.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종교교육의 방안으로 종교교육에서의 영 교육과정을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쁘고를 가르치는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특히 종교교육에서 영 교육과정으로 남아있는 성에 관한 논의를 특히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어떻게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강영택은 종교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의 삶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종교교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교교육은 가치 편향적이어서는

73) 이홍우, 앞의 책, 535-556쪽.

74) 조대훈,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과교육』, 『시민교육연구』제43권 1호(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 211-241쪽.

75) 김두식, 앞의 책, 53-88쪽.

76) 성현, 앞의 책.

안 된다⁷⁷⁾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양한 종교의 가치와 영성에 대하여 우열을 논해서는 안 되며,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적 교육의 중요한 특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과 함께 균형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우마허(Uhrmacher)가 사용한 주목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인 “교육과정 그림자”(curriculum shadow)처럼 교육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밝혀내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⁷⁸⁾고 본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총체성에 있다면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거나 소홀히 되는 영역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중요한 영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⁷⁹⁾ 예를 들면, 나딩스(Noddings)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는데 그녀는 전통적 교육과정에서 합리 성과 이성을 강조함으로써 감정과 배려가 빠졌다는 점 그림으로써 감정과 배려가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교육과정의 종교교육에서 성에 대한 특히 동성애에 대한 인권이나 배려 등이 빠져있다는 점은 이성애자에 대한 우월과 함께 동성애자에 대한 무시를 가져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영 교육과정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성을 신비화함으로써 성 정체성을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낮설고 그림자 교육과정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이 더 이상 영 교육과정으로 남아 있지 않게 하려면 종교교육을 통해 성을 탈 신비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은 계속해서 영 교육과정으로 남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 교육과정으로서의 성을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본다면 첫째, 종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며, 폭넓은 종교교육의 이해를 위한 성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등 인간적 삶을 성적 욕구 상황에서 이루어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종교교육이다. 따라서 인간적 삶의 영역 안에서 종교교육에서의 성교육이 함께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의미와 범위가 재정의 되어져야만 한다. 종교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성 정체성을 형성하려 한다면, 학교교육의 종교 교육과정의 개념을 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서의 차별, 편견, 선입견을 배제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모르면 모를수록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인권차원에서 동성애를 논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이 아

77) 강영택, 앞의 책.

78) P. Bruce Uhrmacher, *The Curriculum Shadow*, Th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Curriculum Inquiry*, 27:3, 1997.

79) 홍후조, 『알기쉬운 교육과정』(서울: 학지사, 2011), 43쪽.

니라 성을 신비화시킴으로써 가리어져 모르고 있었던 점을 부각시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공식적 교육과정만을 받아들여 가르쳤다. 그러나 진짜 삶은 성적 경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영 교육과정까지도 관심을 가져 배제시켰던 부분들을 선택하여 다루도록 한다.

셋째, 성의 신비화를 벗어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동성애를 “죄이며 병이며 그리고 범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는 이러한 신화를 깨뜨리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 만약에 교사가 동성애 학생을 만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에서 교사들은 동성애 학생을 상담할 때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제때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게이나 레즈비언의 긍정적 역할모델을 접해보지 못한다. 긍정적 성 역할 모델을 접해봄으로써 성적 억압을 종식시키고, 성적 성향 해결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⁸⁰⁾ 만물은 선한 것이지 경멸해야 할 것이 아니다. 특히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의 절정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정의 즉,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정의 없이는 완전한 정의는 없다. 우리 모두는 성적 존재인데 성에 대한 이해에서 동성애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인식은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 또는 가치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본다 할 때는 동성애자의 정체성과 정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바꾸려고 한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한다 할 때는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또 다른 방식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은폐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교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게하고 종교교육 안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교수를 통해 똑바른(자기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성적 경향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며, 학교가 성적 경향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부정할 때 학교는 완전하지 않다. 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아는 가족, 친구, 교사들에게 숨겨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언1:7)’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창조주 하느님과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식의 기초가 하느님께 있으며, 진리는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 드러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느님과 그가 창조하신 공동체를 사랑할 때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와

80) William F. Pinar, William M. Reynolds Patrick Slattery, Peter M. Taubman, *Understanding Curriculum: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김복영의 7인 역, 『교육과정 담론』(서울: 원미사, 2001), 500쪽.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지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가르쳐야 한다.

넷째, 동성애자의 성 모델이 필요하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잘못된 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식적 교육과정에 영 교육과정(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기시하면서 배제시키는 내용들)을 끌어 들여와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금기시하고 배제시켜서 몰랐던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입견과 편견, 차별 등을 없애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 예로서 한 교실에 앉아 있는 동성애 학생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종교교육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먼저 교사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감정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동성애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예비교사가 그렇지 않은 예비교사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감정이 낮다는 점에서 고려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동성애 개념에 대한 지식을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교사의 동성애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이나 가치관 등을 고려한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⁸¹⁾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성애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종교 성향도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의 핵심인적 자원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권문제와 학습활동의 결여로 인한 왜곡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성애 개념에 대한 교사교육은, 동성애 개념을 성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동성애 공포증(homophobia)을 해체하는 접근 방식을 택하여 가르칠 것이 요구되어진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차별, 편견, 선입견을 배제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모르면 모를수록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해는 인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인권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기시했던 영역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던 문제였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기되는 내용에 관한 논의는 학교교육과정이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81) 조대훈, 앞의 책, 205-237쪽.

가야 할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학생들에게는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 교육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 차원에서도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차후 연구에서 동성애 주제를 다루기 위한 예비·현직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다루어 보겠다.

참고문헌

-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고등학교 종교』.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8.
-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고등학교 생활과 종교』. 서울: 마리아회유지재단출판사. 2012.
- 강영택.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의 방안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제27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1).
- 곽분이.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입장」, 『한국여성신학』 27(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6).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서울: 교육부. 1992.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
- 김경이. 「가톨릭학교교육 이념에 대한 연구: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Vol.18 No.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 김귀성.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서울: 문음사. 2010.
-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서울: 창비. 2012.
- 김중서. 「현대 한국 고등학교의 종교교과서 연구」, 『종교학연구』 제26집(서울: 서울대인문과학. 2007).
- 박기석.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윤리신학적 고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 본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노권. 「동성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8집(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3).
- 박에스더. 『나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서울: 쌤앤파커스. 2012.
- 성현. 「한국 가톨릭 고등학교 종교 교과용 도서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숨 프로젝트.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서울: 한울. 2010.
- 신광철. 「종교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교육과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신득일. 「구약의 동성애법」, 『신앙과 학문』. 14(2)(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9).
-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1.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 이홍우. 「파이테라스테이아와 태교: 교육의 원초적 세력을 찾아서」. 『교육과정 탐구』. 서울: 박영사. 2010.
- 정진홍.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조대훈.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3(1)(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1).
- 조대훈.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과교육」, 『시민교육연구』. 38(3)(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
- 조쟁규. 「기독교철학의 신체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4)(서울: 한국체육학회. 1999).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진영은.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3.

- 한명희. 「영성과 교육: 21세기 대안교육을 위하여」. 한명희 외 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10.
- 황호택(2007). 한국 가톨릭 태두 정진석 추기경 “유일신 믿으면 근본주의 불가피...그러나 미신과 예절은 구분해야”. 통권 574호. 신동아.
- 홍후조. 『알기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11.
- 〈레이디가가콘서트, 청소년 유해관정 적절 했나〉.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2년 5월 2일.
- 〈Headline 기사〉. <EBS Morning Special>. 2012년 2월 9일.
- 〈The wall street Journal〉. 2012. 5. 10.
- http://www.pauline.or.kr/catholic/pds/cath_view.php/id/1159/page/6
- Boswell, John.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Eisner, Elliot W.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 Foster, Richard J.. *Money, Sex & Power*. 김영호 역. 『돈 섹스 권력』. 서울: 두란노. 2011.
-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sexualite*. 문경자 신은영 공역. 『성의 역사: 쾌락의 활용』. 서울: 나남출판사. 2011.
- Harris, Maria. “Teaching the Null Curriculum: The Holocaust”.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Christian Education Movement*, v.11 no.3. 1989.
- Harris, M., & Moran, G. *Homosexuality: A word not written*. W. Wink (Ed.), *Homosexuality and Christian faith: Questions of conscience for the church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 Harvey, John F. “Updating Issues Concerning Homosexualit”. *The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28. 1993.
- Herbert, Haag and Katharina, Elliger. *Stoert Nicht die Liebe*. 윤선아역. 『사랑을 방해하지 들 말아다오—성서로 본 인간의 성생활』. 서울: 분도출판사. 1988.
- Kathy Rudy. *Sex And The Church: Gender, Homosexua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Christian Ethics*. 박광호역. 『섹스 앤 더 처치: 젠더, 동성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변혁』. 서울: 한울. 2012.
- LeeBoyung. “Teaching Justice and Living Peace: Body, Sexuality, and Religious Education in Asian-American Communities”. *Religious education*, v.101 no.3. 2006
- Melcher, Sarah J. “The Holiness Code and Human Sexuality”. Brawley Robert L.(ed.). *Biblical Ethics & Homosexuality: Listening to Scriptur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Milgrom, Jacob.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Moy, Russell G. “American Racism: The Null Curriculum in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v.95 no.2. 2000.
- Palmer, P.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 Pinar, William F., Slattery William M. Reynolds Patrick, Taubman Peter M. *Understanding Curriculum: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김복영외 7인 역. 『교육과정담론』. 서울: 원미사. 2001.
- Ridley, Matt. *Nature Via Nurture: Genes, Experience, and What Makes Us Human*. 김한영 역. 『본성과 양육: 인간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서울: 김영사. 2004.
- Rowell, J. C. "Toward Understanding Homosexuality: a Agenda for Adult Christian Education's Contribution to Human Wholeness". *Religious Education*, 91. 1996.
- Sandel, Michael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10.
- Sayler, Gwen B. "Beyond Biblical Impasse: Homosexuality Through the Lens of Theological Anthropology", *Dialog*. 44. no 1. 2005.
- Sears, J. "Sexuality: Taking off the masks". *Changing Schools*. Spring 11. 1983.
- Uhrmacher, P. Bruce. "The Curriculum Shadow". *Curriculum Inquiry*. 27:3. 1997.

원고접수 : 2013년 1월 7일 / 1차 심사: 2월 4일 / 2차 심사: 2월 12일/
 게재승인일: 2월 14일

연구자소개 : 심상보

- ① 전공 : 교육과정 및 교육심리 / 소속 : 한남대학교
 - ② 관심영역 :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사양성과정, 예술교육, 영 교육과정, 영성교육
 - ③ 주요논저 :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본 2009 개정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 관점으로 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예술교육
 - ④ E-mail : shiman@hnu.kr
-

Abstract

Homosexuality in the Religious Education at School

Shim, Sangbo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homosexuality as null curriculum in the religious education at school and to search a possible educational strategy for introducing sex education into the official curriculum. Two major contents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ing: (1) what are the aspects of homosexuality as null curriculum in the religious education at school? (2) what could be the best strategy to bring homosexuality, presented in the religious education, as null curriculum into the formal curriculum?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the data analyzed on the religious education presented in official curriculum and study plans. The interview results with religion teachers have been considered as well. The possible educational strategies of sex education, which can be presented as official education in the religious education, have been suggested.

Key words : Religious Education, Null curriculum, Homosexuality